

사회 동·서 갈등해소 누가 할 것인가

지역주의, 학벌주의 DJ집권으로 타파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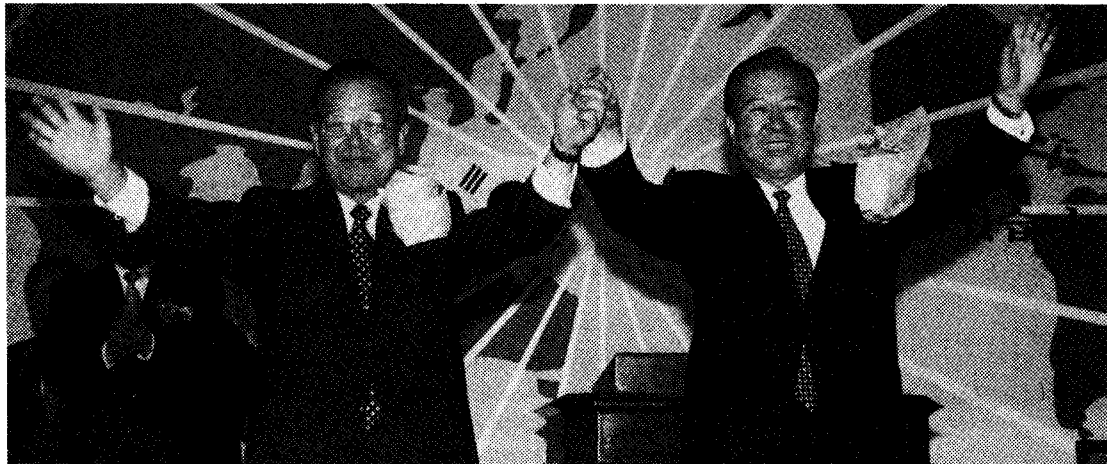
97' 대선과 한국 정치의 변화

라 종 일

(정치외교학과 교수)

②DJ로 정권교체 타당성은?

김대중씨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기록권층의 견제와 압박을 가장 많이 받아온 정치인이다. 하지만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그나마 나아진 문민정부시대에 김대중씨를 조였던 옥쇄가 조금씩 풀려지면서 다시금 그는 15대 대통령후보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표를 의식한 듯 김대중씨는 보수화 성격을 띄게 됨에 따라 그의 개혁성향은 감증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한다. 이에 우리 신문은 기획시리즈 두 번째로 '대통령후보 DJ'에 대한 고찰을 다뤘다. <편집자>



지난주 '뉴욕타임스'지는 이번 한국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이례적인 긴 보도를 하고 김대중이 집권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였으며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 되리라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는 미국 내에서도 석자층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집권의 가능성은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가? 그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차원에 걸친 복합적인 것이다. 가장 평이한 것으로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들 수 있다. 학자들은 민주화를 두 가지의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는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로의 「이행(transition)」이며 둘째는 민주화가 정착되는 「공고화(consolidation)」의 단계이다. 이 「공고화」단계의 가장 결정적인 시금석은 여당이 정권을 내놓고 야당이 되는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김대중이 집권한다면 한국의 정치사의 파적인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셈인 것이다. 이것은 야당이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는 예가 드문 동아시아 민주정치의 일반적인 실례에 비추어 보아서 특히 세계적 관심을 끄는 문제이다.

그러나 김대중의 집권 가능성은 이런 일반적인 이론적인 것 이외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것은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나 폴란드의 바웬사같은 인물과 비교할 수 있는 그의 파란만장한 정치적 역정 때문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그는 반-체제 민주화 투사로써 사형선고를 포함하여 여러차례 사형을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집권은 극적인 요인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예의 「뉴욕 타임스」지의 기사도 제목으로 「전 국가의 적(Enemy of the state-전체주의의 용어임)」의 국가를 리드할 찬스라는 표현을 썼다. 이 점은 상당한 숙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보는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도 전권이라 이제까지 집권자와 국가의 구별이

중을 제외한 4명이 모두 서울대출신이고 여당의 대선후보 주자8명이 모두 같은 학교배경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대학은 150개교 전 문대학은 155개교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많은 고등교육기관 중에 한개 대학이 그렇게 많은 가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딘가 비정상적인 일이다. 김대중의 학연은 사립 대학교인 경희대학뿐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불균형은 우리사회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의 시정을 위해 김대중은 일찍부터 「사회적 동권론」을 주장해 왔으므로 그의 집권이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 걸쳐 균형을 되찾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글 쓰는 순서

- ①정권교체는 과연 필요한가
- ②DJ로 정권교체 타당성은?
- ③대안세력으로서 국민정당
- ④97대선 경희인 설문조사

첫째로 이른바 측근정치의 폐단이 있지 않았는가하는 우려이다. 이것은 김대중의 주변과 지지자들 중에 국정운영에 경험과 정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거 중요한 정부직책을 맡게되는 경우 이번 정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정의 난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둘째로는 집권 이후 자기가 당한 박해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다.

끝으로 김대중이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부 행태의 경험에서 나온 기우일 뿐 현실의 정치구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김대중은 아직 의회에서 3분의1에도 못미치는 소수의석만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며 앞에서 지적한 바 국가기관 내에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여 왔다. 김대중의 집권은 이번 세기가 가기 전에 이 실패를 만회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리라고 기대된다. 산업화 추진세력과 민주화 추진세력의 화해 동·서갈등의 해소 등은 김대중만이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이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한국근대정치사에서 가장 큰 희생자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만델라가 흑·백화해를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일부에서 아직도 그의 집권 전망에 관하여 일말의 불안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불안의 내용은 아래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DJ 대통령후보 타당성'에 대한 논쟁 정리

그래도 '3김청산'은 이루어져야 한다

DJP로 수구화하는 DJ...현 정치상황 보수는 필요악

대선을 앞두고 각 일간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서 김대중 국민의 총재가 지지율 30%를 넘어섬에 따라 당선가능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후보로서 김대중후보에 대한 평가와 그의 정치성향을 두고 여러 평가들이 난립하고 있다. 주로 사회참여적 색채를 띄는 교수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 DJ'에 대한 논쟁들을 정리해보았다.

손호철(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한국정치학회에서 발간되는 계간지인 '정치평론'(96년 겨울 창간호)을 통해 '수평적 정권교체 한국정치의 대안인가'라는 글을 게재해 국민의목이 주장하고 있는 DJ를 앞세운 여당에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설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로 14대 총선의 '뉴 DJ플랜'을 통해 계속되어온 DJ의 우경화, 보수화가 정권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회의가 말하고 있는 수평적 정권교체는 현재의 정권보다 더 월등한 민주적 비교우위가 있을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DJ는 13대 총선 이후 제 1야당으로 급부상했던 평민당의 자리매김을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중간평가 공약 실행 불필요론을 제기하여 중간평가를 면제시켜주는 등 '온건적 민주투쟁노선'을 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동해안 잠수함 사건을 계기로 강경한 대북발언을 일삼고 연대사태 이후 한층더 해체설을 주장하며 얼마전 전·노사면을 지지하는 등 중산층의 표를 의식한 보수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DJ만의 진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즉 정권교체의 민주적 차별성이 없어진 것이다.

둘째, DJ는 지역감정을 타파하는 개혁적 노력보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표다지기에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호남지사 예비선거에서 DJ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하고 '비주류'인물이 당선되는 등 지역주의 약화에 의의의식을 느낀 DJ는 '지역동권론'이라는 구실로 충청세력과 연대를 모색했다.

세 번째로 자민련과의 연합인 DJP로 인해 결정적으로 DJ는 자신만의 진보적 정치색깔을 잃었다 한다.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수밖에 없는 호남세력이 유신세력과 5. 6공 세력의 모태였던 자민련과 연대를 한다는 것은 한국정치를 염두에 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 해도 이들과 손잡은 이상 집권 후 진보적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수평적 정권교체에 따른 민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한국정치의 병폐인 3김 중심의 사당정치를 종식시키는 '범민주야당연합론' 내지 '제3후보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DJ는 대권욕심을 버리고 서울시장선거에서 조순후보를 지지해 성공한 것 같이 제3후보



▲김대중에 대한 평가서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손교수의 일련의 논리에 대해 '김대중 죽이기'의 저자인 강준만(전북대 신학과) 교수는 '인물과 사상(1편)'에서 'DJ집권이 현재로서는 최상책이다'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강교수는 우선 DJ의 보수화에 대해 'DJ죽이기'에 일관한 기존의 정치세력에서 DJ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현실을 인정했을 뿐'이라 말한다.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은 '안정 노이로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맞서기 보다는 정부여당처럼 안정론을 주장하는 것이 더 이상 정치비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노사면에 있어서도 영남권에선 아직도 이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다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위해 거쳐갈 수밖에 없는 장벽이라고 강교수는 말한다.

호남세력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 DJ가 주장하고 있는 '거국내각구성(지역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한다는 일종의 탕령책)'이 문제를 해소해 준다고 한다.

또한 DJ연합에 대하여 '이미 호남지역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63%에 달한다는건 5. 6공을 계승한 여당의 정권 재창출보다는 DJP가 낫다는 뜻으로 받아져야 하며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다 낙선하는 것 보다 DJP로 당선된 후 부분적으로나마 개혁을 진행하는 편이 더 생산적'이라 한다.

또한 강교수는 손교수의 주장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적 몽상일 뿐 현실을 직시한 대안이 더욱 절실하며 앞으로 한국의 살 길인 외교, 경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DJ가 현재로서는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다.

이상에서 두 교수의 주장의 공통점은 사실상 제3후보를 인정하는 3김청산과 정권교체이지만 실현가능성을 두고 'DJ집권'과 'DJ불가'가 맞서는 것이다.

(정리: 김동욱 기자)

□ 97대선 하이텔 인터넷 전자투표결과

김대중 34.3%로 여전히 1위

인터넷을 통한 선거가 가능하면 어떨까?

지난 7월 11일부터 PC통신 하이텔에선 대권후보 여론조사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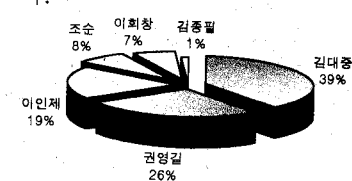
하지만 참여자는 인터넷 사용자로 한정되어있어 전체참여자중 남성이 89%, 수도권 거주자가

55%를 차지하고 20~30대도 85%를 차지하여 여론조사 표본추출로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전자투표 실현가능성 탐색'이란 측면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다.

지난 달 30일에는 4차 전자투표결과가 나왔는데 1위가 김대중

총재, 2위가 권영길 위원장으로 나타나 나이가 젊고 어느정도 고학력자들 사이에서 권영길 위원장의 지지도가 높다는걸 알수있다.



<http://www1.hitel.net/daesun/index.html>

SK

10월 1일 유공이 SK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한국경제의 원동력 유공이 세계적인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이 되기 위해 SK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가는 힘, 에너지·화학에 있습니다.

힘있는 나라를 만드는 에너지·화학 - SK가 책임지겠습니다

舊사명	新사명
유공해운	SK해운
홍국상사	SK에너지판매
유공가스	SK가스
유공옥시제미탈	SK옥시제미탈

★기획제작: 유공 홍보실 담당 임병진/재활기획: CD오션전·GD최진, 홍요한·CW이상은·AE백영기, 이승복

한국의 힘 -
SK 주식회사
<http://www.skcorp.com>